발의안 제39호

다주 기업에 대한 세금 대우.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자금 제공. 주민발의 법안.

★ 발의안 제39호에 대한 찬성론 ★

2009년, 한 정치적 거래로 인해 타주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십억 달러에 달하는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 . .

새크라멘토에서 진행된 2009년도 예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한밤 중 의회 의원들과 타주 기업 이익을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은 공청회도 없이 시민 토의도 없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들은 주법에, 타주 기업들이 매년 캘리포니아주 조세 제도를 마음대로 조종해 캘리포니아 주에 공정한 자신들의 몫을 내지 않게 해주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 빠져나갈 구멍의 대가는: 연간 캘리포니아 주 세입이 10억 달러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39호에 찬성 투표하시면 타주 기업에 대한 조세 구멍이 사라집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이 구멍을 깨끗이 막아 줍니다. 이러한 우리 조세 제도의 조작 행위를 종식시키고, 실제 본사가 어디 있든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여기서 창출되는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9호는 다주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기업들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듭니다.**

제39호에 찬성 투표하십시오-이 구멍을 없애는 것이 캘리포니아 일자리 창출에도 좋습니다

지금의 조세 구멍을 이용하면 기업들은 여기에 있는 직원 수가 더 적을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 밖으로 일자리를 옮겨가는 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의 초당파적 독립 입법분석관이 인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의안 제39호로 인해 많게는 40,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독립 입법분석관은 지금 있는 구멍을 없애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39호에 찬성하면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얼마 되지 않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다주 기업들이 이 구멍을 이용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에 연간 10억 달러라는 세입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이 구멍을 막고, 이 돈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 공공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세입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체 신규 세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수억 달러가 각급 학교에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발의안 제39호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감해 줄 것입니다. 제39호는 구멍을 막는 데서 생기는 세입의 일정 부분을 각급 학교 및 공공 건물에서 실시되는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됩니다. 단열성 개선, 새는 창문 및 지붕 교체, 소규모 태양열판 설치 등과 같이 효과가 입증된 에너지 효율성 강화 조치를 통해 주정부의 에너지 비용을 줄임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교육, 경찰 및 소방 등 필수 서비스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천식과 폐기관 질환을 일으키는 공기 오염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발의안 제39호는 학교 건물 보수 작업을 통해 납, 석면, 곰팡이 및 그 외 독성 물질들을 학교에서 없애게 될 것입니다." —Jane Warner, 회장, 캘리포니아지부 미국 폐협회

제39호에 찬성 투표합시다—엄격한 책임성

발의안 제39호에는 **연단위 독립 감사 실시**, **시민 감시 위원회**에 의한 지속적인 검토 및 평가, 모든 기금 및 지출에 대한 **완전한 회계 기록**, 그리고 **완전한 일반 공개** 등, 엄격한 재정 책임성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9호에 찬성 투표합시다—기본 상식입니다: 타주 기업을 위한 조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연간 10억 달러를 다시 캘리포니아로 가져옵시다.

http://www.cleanenergyjobsact.com/

JANE WARNER, 회장
캘리포니아지부 미국 폐협회

TOM STEYER, 의장
청정 에너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민 모임

MARY LESLIE, 회장
로스엔젤레스 기업협의회

★ 발의안 제39호에 대한 찬성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9호의 캠페인 공약을 읽으실 때는 CNN이 "캘리포니아 주 헤지 펀드 킹"이라고 부른 Tom Steyer가 "빠져나갈 구멍" 같이 여론 조사를 통해 검증한 번듯한 전문 용어에 2,00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고 "깨끗한 일자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기록적인 속도로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어떻게 상황을 개선시키는 방법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발의안 제39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팔년 연속으로 사업하기 가장 안 좋은 주로* 꼽히고 있고, 미국 전체에서도 신용 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실업자는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라구요? 아닙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이미 수십 년 간 시행되고 있고 주정부 세입으로 수십억 달러를 창출하고 있는 조세법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초당파적 입법분석관과 재무부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39호는 10억 달러의 세금 인상안입니다.**

진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0억 달러의 세금 인상은 캘리포니아 주의 고용주들에게 투자나 고용을 하지 않을 또 하나의 핑계를 제공해 줍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세입도 줄어들고, 학교와 법집행 기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에 좋은 일일까요?

발의안 제39호는 투표함 예산 책정의 최악 버전입니다. 학교, 도로, 인프라, 공공 안전에 투자될 수 있는 25억 달러를 주 예산에서 훔쳐갑니다.

발의안 제39호는 또한 정치적 친분 집단을 위해 급여와 연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등 새로운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추가합니다. 책임을 묻지는 않고, 부정부패에 대한 납세자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세금은 늘고, 일자리는 줄고, 관료주의와 낭비는 늘어납니다 . . . 책임성은 **제로**고, 이해 상충에 대한 납세자 보호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발의안 제39호의 진실입니다.

민주당원, 무소속, 공화당원 모두 동의합니다-반대 투표합시다!

MIKE SPENCE, 회장
캘리포니아 납세자 보호위원회

ROBERT MING, 의장
캘리포니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 모임(Friends for Saving California Jobs)

JACK STEWART, 회장
캘리포니아 제조업체 및 기술 협회

본 페이지에 인쇄된 찬반론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공기관에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발의안 **제39호** 다주 기업에 대한 세금 대우.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자금 제공.
주민발의 법안.

★ 발의안 제39호에 대한 반대론 ★

발의안 제39호는 캘리포니아 주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주들에 대해 막대한 10억 달러 상당의 세금 인상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중산층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율은 거의 11%에 육박하면서 이미 전국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우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발의안 제39호는 낭비와 부정부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39호는 새로운 관료주의적 장애물과 특별 이익 단체 위원회에 최대 2,200만 달러를 지출합니다.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없이 수십억 달러를 쓸 수 있는 백지 수표를 주고, 납세자들을 이해 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제39호에 자금을 대고 있는 사람은 CNN 방송이 "캘리포니아의 헤지 펀드 킹"이라고 부르는 억만장자로, 이 사람은 유권자들의 표를 사서 투표에 이기기 위해 2,000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 컨설턴트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들을 믿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39호는 정치가 보일 수 있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더 많은 세금과 낭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반대 투표해야 합니다.

학교, 보건 및 복지, 환경 보호, 공공 안전 등으로 갈 수 있었던 25억 달러가 대신 두툼한 급여 봉투에 책임성이라고는 거의 없는 새로운 정부 위원회로 전용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예산 적자는 16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발의안 제39호는 불필요한 새 관료주의적 장치에 돈을 낭비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교사와 경찰관이 필요하지 관료주의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중산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공격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던 제조업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2백만에 가까운 근면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어떤 일자리도 찾지 못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9호가 제안하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은 4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조세 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더 많은 노조원 및 비노조원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정부와 관료집단을 더 크게 키웁니다. 다 들어 본 얘기입니다. 새크라멘토에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시민 감시 위원회 같은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정치적 임명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도록 돈을 줍니다. 그들은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또는 낭비할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습니다.

발의안 제39호에서는 소위 "녹색 에너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계약에 돈을 지출합니다. 이 계약은 누가 수주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거액의 선거 자금 기부자들입니다. **제39호는 매우 엉성하게 작성되어 하청업자들이 계약을 승인하는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에게 선거 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개혁이 필요하지, 중산층 일자리를 없애는 세금 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1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인상해 이 돈으로 관료주의 장치와 연금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주 예산 적자, 높은 실업율,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는 없습니다.

제39호의 자금을 대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권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발의안 제39호에 반대 투표하시면 캘리포니아 주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를 없애는 10억 달러의 세금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캘리포니아 주 중산층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은 살찐 정부와 연금을 더욱 살찌우기 위한 특수 이익 단체 지출을 위해 백지 수표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 낭비적 지출, 변함 없는 정치인들에게 반대 투표하십시오. 정부 책임성을 요구하십시오. 제39호에 반대 투표합시다.

JACK STEWART, 회장
캘리포니아 제조업체 및 기술 협회
LEW UHLER, 회장
전국조세제한위원회
PAT FONG KUSHIDA, 회장
캘리포니아 아세아태평양 상공회의소

★ 발의안 제39호에 대한 반대론에 대한 반론 ★

사실: 발의안 제39호에 찬성 투표하면 타주 기업들을 위한 세금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측 주장은 추잡하고 기만적입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캘리포니아 가족들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타주 기업들에게는 불공정한 세금 감면을 주지만 우리에게는 손해만 끼치는 구멍을 막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위의 주장에 서명한 "제조업체 그룹"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포함해 타주 기업들이 속임수를 써가며 제39호에 앞장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멍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2009년, 밀실에서 이 구멍을 만든 것은 의회 의원들과 로비스트들이었습니다

San Jose Mercury News는 이를 두고 기업 로비스트들이 "캘리포니아를 속여 넘겼다, 이것이야 말로 기업들의 평판을 추락시키고 정부의 개방 정책을 조롱하는 속임수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39호에 찬성 투표하면 구멍을 막아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최악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39호는 캘리포니아 주에 일자리를 만듭니다

고용주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반대측의 주장은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세금 구멍은 일자리를 다른 주에 두는 기업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캘리포니아 주 내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장벽을 제거해 줍니다. 게다가 발의안 제39호를 통해 수천 개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사실: 엄격한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관료주의적 장치에 대한 반대편의 거짓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연단위 **독립 감사**를 포함해,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효율성에 지출된 돈이 올바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 위원회 수립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는 구멍을 막는 데서 생기는 세입에서 수억 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39호에 찬성합시다. 구멍을 막읍시다-캘리포니아의 세입과 일자리를 지킵시다.

ALAN JOSEPH BANKMAN, 조세법 담당 교수
스탠퍼드 로스쿨
RUBEN GUERRA, CEO
중남미 기업 협회
JANE SKEETER
캘리포니아 소기업 소유주

39